

典型的인 瘧疾의 證例 報告

朴宰賢

I. 緒 論

瘧疾은 寒熱往來가 규칙적으로 一日, 隔日 또는 三日에 一發하는 것이며¹⁾, 처음 發作할 때 먼저 皮膚의 毫毛가 곤두서고 하품과 기지개를 켜다가 寒慄鼓額 腰背俱痛하고, 寒氣가 없어지면 內外가 모두 熱하여 頭痛如破 渴欲 冷飲하게 되는 것으로²⁾, 먼저 寒慄하고 이후에 壯熱, 頭痛, 煩渴한 다음 汗出하는 특징이 있다.

瘧疾의 發熱 週期에 따라 一日一發者는 受病一月, 隔日一發者는 受病半年, 三日一發者는 受病一年한 것이며³⁾, 一日一發者는 易治, 隔日一發者는 難治, 三日一發者는 더욱더 難治라 하여⁴⁾, 發熱의 週期가 길고 發病後 기간이 오래 경과된 것일수록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瘧疾이 一日一發하는 것은 瘧疾의 初期에 病邪가 身體의 淺部에 있어서 衛氣의 運行이 아직 正常임을 뜻하며, 隔日一發 또는 三日一發하는 것은 久病으로 邪氣가 身體의 深部에 침입하여 衛氣의 運行이 失常한 것으로⁵⁾, 一日一發者는 陽病表證에 隔日 또는 三日一發者는 陰病裏證에 屬한다.

瘧疾의 症狀 가운데 惡寒은 半表半裏의 邪氣가 營分에 入한 것이며, 發熱은 衛分으로 出한 것이라 하여⁶⁾ 瘧疾을 營衛間의 正邪相爭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형적인 瘧疾의 發病은 임상에서 소수 나타나며, 특히 三日一發의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데, 이에 저자는 임상에서 경험한 뚜렷한 瘧疾의 證 가운데 二日一發者와 三日一發者의 文獻에 기재되지 않은 發熱 週期의 특성을 소개하고, 少數例이기는 하나 임상 처형례를 토대로 치료방향을 설정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II. 證 例

[증례 1]

- 환자 : 권 ○ 태 남자 39세
- 주소증 : 寒熱往來(惡寒後 發熱) 三日一發, 發熱時 頭痛 全身痛 發汗, 만성피로 체중 감소 두통 식욕부진 便秘 或泄瀉 白苔厚膩
- 기왕력 : 뚜렷한 소견 없음.
- 사회력 : 직업은 이발사이며, 체형은 약간 비만하고, 성격은 급한 편이며, 음주는 2~3회/월, 흡연은 1갑/일 정도임.
- 현병력 : 약 1년 2개월전부터 이유 없는 심한 피로감과 불규칙적인 發熱 및 發熱時의 頭痛으로 종합병원에서 검사후 뚜렷한 소견 없이 신경성, 화병으로 진단 받고 해열제, 진통제 등을 투약함. 이후 8개월전부터 발열이 규칙적으로 3일마다 1회씩 오전 혹은 오후에 나타나고 惡寒은 점차 없어짐. 약 3개월전부터는 규칙적으로 3일

*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간계내과학교실

에 1회씩 오후 5~6시경에 발열을 계속하여 경산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 내과에 내원하였음.

- 과거력 : 없음
- 가족력 : 없음
- 이학적 소견 : 내원시 혈압 130/90mmHg, 맥박 78회/min, 체온 36.8℃였으나 발열시에는 39~40℃까지 상승
- 검사소견 : WBC 9,200/mm³, Neutrophil 69%였으며 기타 CBC, LFT, EKG, Chest PA, U/A, Malaria 혈액도말검사(-) 등은 정상이었음.
- 發熱의 양상 : 환자의 發熱은 정확한 3일 주기로 3일마다 오후 5~6시경에 惡寒이 있는 다음 나타나며, 發熱時에는 체온이 39~40℃까지 상승하며 發熱은 약 10분간 지속된 후에 汗出과 함께 소실됨. 發熱은 일정하게 3일주기를 유지하며 3일째 발열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3일 후에 발열이 나타남. 3일째 발열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는 가벼운 上氣症狀을 느낄 수 있었으나 체온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 내원전 2개월간의 환자가 기록한 발열이 나타난 날은 <표 1.>과 같이 일정한 주기를 나타내었다.

간 치료 중에 발열은 3일 간격으로 나타났으나 최고 체온은 38.7℃로 호전되었고, 先惡寒後發熱의 증상 대신 寒熱往來의 형태로 나타남. 기타 두통 전신통 등의 증상은 현저히 호전됨.

- ② 치료 21일~40일 : 小柴胡湯加味方으로 20일간 치료중 發熱은 6일 후 9일 간격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체온은 37.8℃로 미약하게 나타남. 發熱의 양상은 無惡寒 微發熱의 형태로 나타나고 기타 증상은 미약한 頭痛만을 호소함.
- ③ 치료 40일~55일 : 小柴胡湯加味方으로 치료중 發熱은 消失되고, 6일 후 9일 간격으로 熱感 身疼 無力感만 미약하게 나타남.
- ④ 치료 56일~60일 : 補中益氣湯加味方으로 身疼 無力感 등 諸般症狀 消失되었으며 發熱感은 없음. 치료 완료. 치료기간중 환자의 발열 양상은 <표 2.>와 같다.

<표 1. [증례 1]의 치료전 발열 주기>

4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			●			●		
5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			●			●		

● ; 發熱이 있었음. × ; 發熱이 없었음.

• 치료경과

- ① 치료 1일~20일 : 達原飲加味方으로 20일

<표 2. [증례 1]의 치료중 발열 주기>

6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			●			×		
7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			×			×		

- ; 發熱이 있었음.
- × ; 發熱이 없었음.
- △ ; 熱感만 나타남.

[증례 2]

- 환자 : 손 ○ 정 여자 42세
- 주소증 : 주기적인 발열(二日一發), 오한, 두통, 便微秘 或泄瀉 白苔厚膩
- 기왕력 : 뚜렷한 소견 없음.
- 사회력 : 전업주부이며, 체형은 보통이고, 성격은 내성적이다. 음주, 흡연경력은 없다.

2일마다 1회씩 오후 1~1시30분 경에 발열을 계속하여 경산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 내과에 내원하였음.

- 과거력 : 없음
- 가족력 : 없음
- 이학적 소견 : 내원시 혈압 110/70mmHg, 맥박 80회/min, 체온 36.5℃였으나 발열시에는 38~38.5℃까지 상승
- 검사소견 : WBC 8,700/mm³, Neutrophil 67%였으며, 기타 CBC, LFT, EKG, Chest PA, U/A, Malaria 혈액도말검사(-) 등은 정상이었음.
- 發熱의 양상 : 환자의 發熱은 정확한 2일

<표 3. [증례 2]의 치료전 발열 주기>

9~10월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		●		●		●		●		×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		×		●		●		●		●	

- ; 發熱이 있었음. × ; 發熱이 없었음.

- 현병력 : 약 6개월전부터 규칙적인 發熱 및 發熱時의 頭痛으로 병원에서 검사후 뚜렷한 소견 없이 瘧疾으로 진단 받음. 별 다른 치료는 없었으며, 발열은 규칙적으로

주기로 2일마다 오후 1~1시30분 경에 惡寒과 함께 체온 38~38.5℃까지 상승하며, 發熱은 약 10~15분간 지속된 후에 소실됨. 발열은 일정하게 2일주기를 유지하며

2일째 발열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2일 후에 발열이 나타남. 내원후 1개월간 기록한 환자의 발열이 나타난 주기는 <표 3.>와 같다.

• 치료경과

- ① 치료 1일~10일 : 達原飲加味方으로 10일간 치료중에 발열은 2일 후 4일 간격으로 나타났으며, 치료기간중 발열시의 평균 체온은 37.4℃, 최고 체온은 38℃로 나타남. 惡寒은 거의 소실되고 미약한 發熱이 남음. 기타 頭痛 便秘 등의 症狀은 소실됨.
- ② 치료 11일~20일 : 達原飲加味方으로 10일간 치료중 熱感은 2일 후 4일 간격으로 나타났으나 체온계상의 발열은 미약하게 나타남. 치료기간중 최고 체온은 37.1℃였으며 惡寒은 없고 열감만 나타남. 치료중 완만한 설사 2회 나타남. 기타 증상은 소실됨.
- ③ 치료 21일~30일 : 小柴胡湯加味方으로 치료중 發熱 熱感 頭痛 便秘는 消失되고, 환자는 便軟 無力感만을 호소함.
- ④ 치료 31일~40일 : 補中益氣湯加味方으로 便軟 無力感 등 諸般症狀 消失됨. 치료 완료.

Ⅲ. 考 察

瘧疾은 瘧邪, 瘧毒 或 風寒暑濕이 人體에 侵入하여 먼저 寒慄하고 이후에 壯熱, 頭痛, 煩渴한 다음 汗出하는 등 마치 寒熱往來가 一日, 隔日 或은 三日에 一發하는 특징이 있는 질병으로¹⁾, <素問·瘧論>에서는 '瘧疾이 처음 發作할 때는 먼저 皮膚의 毫毛가 곤두서고 하품과 기지개를 켜다가 寒慄鼓頰 腰背俱痛하고, 寒氣가 없어지면 內外가 모두 熱하여 頭痛如破 渴欲冷飲하게 된다'고 하고 惡寒과 發熱의 樣相에 따라 寒瘧, 溫瘧, 瘧疾 등으로 구분하였다²⁾. 또한 隔日에 一發하는 것을 瘧라 하고, 每日 一發하는 것을 瘧이라 하나 通稱 瘧疾이라 稱한다⁷⁾.

瘧疾은 發熱 週期에 따라 一日一發者는 受病一月이며, 隔日一發者는 受病半年이고, 三日一發者는 受病一年한 것이며³⁾, 一日一發者는 易治, 隔日一發者는 難治, 三日一發者는 더욱 더 難治로⁴⁾ 發熱의 週期가 길수록 發病後 기간이 오래 경과된 것이며 難治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一日一發하는 것은 瘧疾의 初期에 病邪가 身體의 淺部에 있어서 衛氣의 運行이 아직 正常임을 뜻하며, 隔日一發 或은 三日一發하

<표 4. [증례 2]의 치료중 발열 양상>

10월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		×		×		●		×		●		×
31일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		×		△		×		×		×		×	
12월	30	1	2	3	4	5	6	7	8	9	10				
10일	×		×		×		×		×						

● ; 發熱이 있었음. × ; 發熱이 없었음. △ ; 熱感만 나타남.

는 것은 久病으로 邪氣가 身體의 深部に 침입하여 衛氣의 運行이 失常한 것으로⁵⁾, 一日一發者는 陽病表證에 속하며 隔日 或 三日一發者는 陰病裏證에 屬한다.

本 報告에서 환자의 發熱은 정확히 二日 或 三日 간격으로 나타나며, 發熱時에는 먼저 惡寒이 나타나고 이후에 頭痛 全身痛과 함께 發熱하며 연후에 汗出의 症狀을 보여 이들은 역대 문헌에 나타난 전형적인 瘧疾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2例 모두에서 二日 或 三日 간격의 예정일에 發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후의 發熱은 前日이나 翌日이 아닌 정확하게 다음 예정일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發熱이 예정일에 나타나지 않고 休止하는 것은 역대 문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惡寒을 半表半裏의 邪氣가 營分에 入한 것으로, 發熱은 衛分으로 出한 것으로⁶⁾ 설명하는 것으로 볼 때 正邪가 相離하여 邪伏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瘧疾의 치료에는 부정거사의 치법이 응용될 수 있다.

또한 瘧疾 환자의 병세가 호전된 치료의 末期에는 發熱 예정일에 발열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발열의 주기가 길어지며, 환자는 예정일에 發熱이 나타나는 대신 체온 변화는 없이 '가벼운 上氣 或 身熱感만 나타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邪氣가 消盡하여 더 이상 正邪相爭의 여력이 없는 病證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發熱 週期 및 樣相은 瘧疾이 治愈 直前의 단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한의학에서 瘧邪는 人體에 侵入하여 半表半裏에서 營衛之間을 出入하는데 瘧邪가 營分 陰分에 入하면 惡寒하고, 衛分 陽分에 出하면 發熱하며 正邪가 相爭하면 寒熱往來한다. 邪氣가 陽分에 있으면 發病 間隔이 빨라서 一日一作하며, 邪氣가 陰分에 있으면 發病 間隔이 늦어서 二日一作 或 三日一作한다¹⁾. 즉, 邪氣가 身體의 深部に 入할 수록 惡寒은 심하게 되고, 寒熱往來의 症狀은 正氣가 存乃하여 邪氣와 相爭함을 의미한다. 本 증례에서 患者의 病證

이 好轉됨에 따라 먼저 惡寒의 症狀이 消失된 후에 發熱이 없어지며, 이는 病邪가 深部에서 淺部로, 陰分에서 陽分으로 出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곧 正虛邪盛에서 正邪相爭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한의학적인 치료가 扶正祛邪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瘧疾의 治療에 있어서 먼저 惡寒이 소실되고, 이후에 發熱이 없어지는 것이 順證인 것으로 생각된다.

瘧疾의 治法은 大柴胡湯이나 白虎湯으로 下하며, 熱이 심한 경우에는 調胃承氣湯을 사용하고, 혹은 五苓散 小柴胡湯 등을 응용하는데⁸⁾, 本 증례에서 초기에는 모두 溫病에서 이용되는 <達原飲>⁹⁾을 기본방으로 사용하며 惡寒과 發熱이 消失되었으며, 이는 한의학에서는 祛邪法이 곧 扶正法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疾病의 末期에는 <補中益氣湯>¹⁰⁾을 사용하여 扶正法이 곧 祛邪法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瘧疾의 發病은 드물게 나타나며, 특히 隔日 및 三日瘧은 臨床에서 거의 보고되지 않아 역대 문헌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다. 이에 저자는 임상에서 경험한 전형적인 隔日 및 三日瘧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질병 경과와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瘧疾 發病의 특징을 소개하였으나 증례가 2례에 불과하여, 향후 여러 임상가들의 다양한 증례를 통하여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 論

임상에서 경험한 전형적인 隔日 및 三日瘧 환자의 치료 과정을 통하여 관찰한 결과 瘧疾의 경과에 따른 여러 증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瘧疾의 발열 주기에 있어서 二日 或 三日 간격의 예정일에 發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전일 혹은 익일이 아닌 반드시 다음

예정일에 發熱이 나타난다.

2. 瘧疾의 증상 가운데 먼저 惡寒이 소실된 후에 發熱이 없어지는 것이 順證이며, 이는 곧 扶正祛邪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 瘧疾의 치료과정에서 發熱의 週期가 길어지며, 예정일에 체온 변화 없이 上氣 身熱感만 나타나는 것은 瘧疾이 治愈 直前의 단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參 考 文 獻

1. 方藥中外 : 實用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 140
2. 楊維傑 註 : 黃帝內經素問,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3, p. 273
3. 朱震亨 : 丹溪心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6, p. 164
4. 嚴用和 : 濟生方, 湖南,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 341
5. 吳謙 : 醫宗金鑑(卷下),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7, p. 215
6. 王琦外 : 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1, p. 171
7. 金定濟 : 診療要鑑,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3, p. 532
8. 張子和 : 儒門事親(卷四), 台北, 旋風出版社, 1976, p. 9
9. 楊蘊祥 : 古今名方,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3, p. 496
10. 李 杲 : 東垣十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233

ABSTRACT

Case study on the Fever pattern of Malaria(瘧疾)

Jae Hyun, Park

Department of Hepatobiliary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san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on the bases of clinical consideration about patient who has malaria(瘧疾).

The symptoms of malaria are periodic alternating of chills and fever on every one, two or three days. The patients feel a chill at the first time of malaria, and have a fever, headache and sweating at the next time. The long cycle of malarial fever such as every 2 or 3 days means that it takes a turn for the worse.

In this study, oriental medicine was taken based on the oriental medicine principle such as Dalwonum(達原飲), Sosihotang(小柴胡湯) and Bojungikgitang(補中益氣湯), and the patients take a turn for the better.

In the process of treatment if there is no fever in the expected date of the malarial fever, it is sure to have fever in the next expected date.

It is favorable that patients lose the chills first and the fever lately in the process of treatment, and we can explain that supporting healthy energy to eliminate evil(扶正祛邪).

The long cycle of malarial fever such as every 4, 6 or 9 days means that it is just before the recovery.

KEYWORDS : Malaria(瘧疾), malarial fever, chill